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새 시즌 '첫 승 신고'

서아루·송혜수, 공격 선봉 GK 이민지 위기마다 선방 부산시설공단 3점차 제압

광주도시공사가 부산시설공단을 꺾고 새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5일 오후 5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리그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2매치 데이 경기에서 부산시설공단 상대로 27-24, 3점차 승리를 거뒀다.

개막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광주도시공사는 1승 1패(승점 2점)를 기록해 4위로 올라섰고, 부산시설공단 역시 1승 1패(승점 2점)지만, 5위로 내려앉았다.

전반 초반 팽팽했던 승부는 부산시설공단의 실책이 나오면서 김지현과 서아루의 연속 골로 광주도시공사가 4-2로 앞섰다.

김다영의 골로 부산시설공단이 따라붙나 싶었지만, 이민지 골키퍼의 선방에 이어 김수민과 이아현의 골로 7-4까지 달아났다.

양쪽 윙을 적극 활용하며 부산시설공단을 압박한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의 중거리 포가 터지면서 9-4까지 격차를 벌렸다.

부산시설공단의 수비가 안정을 찾으면서 광주도시공사가 매번 패시브에 쫓겼지만, 마지막에 골에 성공하면서 11-5로 앞섰다.

부산시설공단 공격은 골대를 강타하거나 이민지 골키퍼를 뚫지 못하면서 득점이 쉽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지난 5일 열린 부산시설공단과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점프슛을 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도시공사는 공격 기회에서 최대한 골을 만들어 고르게 득점을 올리면서 16-7로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김수연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을 송혜리와 문수현이 골로 연결해 부산시설공단이 16-9로 따라붙었다.

광주도시공사가 연이어 실책으로 초반 흔들리나 싶었지만, 스틸을 속공으로 성공하면서 18-10으로 앞서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부산시설공단의 연이은 실책을 틈타 광주도시공사가 23-13, 10골 차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의 실책이 이어지면서 25-20, 점수차는 5점까지 좁혀졌다. 위기의 순간, 이민지 골키퍼의 선방과 서아루의 쐐기 골이 나오면서 광주도시공사가 27-24로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아루가 양 팀 최다인 10득점을 올리며 선봉에 섰고 송혜수가 4득점 8도움으로 뒤를 이었다.

수비에서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골키퍼 이민지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 FA로 팀을 이탈한 박조

은을 대신해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은 이민지는 총 11세이브를 기록하며 상대의 공격을 막아냈다. 특히 후반 부산시설공단이 맹렬히 추격하던 순간,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의 리드를 지켰다.

경기 MVP에 선정된 광주도시공사 송혜수는 "첫 경기 어렵게 저서 이번 경기는 푹푹 뭉쳐서 하나로 해 보자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이겨서 너무 기분 좋다. 이번 시즌 우리 팀이 젊어졌는데 푹푹 뭉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2025 시즌 리그 유니폼 <광주FC 제공>

'찬란한 순간, 팬들과 함께'

광주FC, 2025시즌 리그 유니폼 'The Shine Gwangju' 공개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시즌 K리그 무대를 수놓을 유니폼을 공개했다.

광주는 6일 "새로운 킷 파트너 골스튜디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25시즌 리그 유니폼 'The Shine Gwangju'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2025시즌 리그 유니폼 'The Shine Gwangju'는 광주의 상징인 '빛'을 컨셉으로 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찬란한 순간'을 팬과 함께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니폼에는 반짝이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구단 엠블럼 하단에 위치한 '5개 별빛'을 열전사 기법으로 녹여내 입체감을 살렸다.

실리콘 재질의 엠블럼 로고를 제작해 유니폼 원단의 색상이 엠블럼에 이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유니폼 퀄리티를 높였다.

유니폼 디자인은 모두 동일하게 제작돼 통일성을 부여했다. 홈 필드 유니폼은 구단의 상징색인 옐로우 컬러에 버건디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어웨이 필드 유니폼은 상하의를 화이트 컬러로 통일감을 주며 깔끔함을 표현했고 GK 유니폼은 각각 그레이 컬러와 민트 컬러로 일상 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컬러로 출시된다.

리그 유니폼은 2월 초 구단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골스튜디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지한다.

한편, 신규 ACLE 유니폼은 1월 말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이강인 PSG 입단 후 4번째 우승

PSG, AS모나코 꺾고 프랑스 슈퍼컵 '13번째 우승'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67분을 뛰 파리 생제르맹(PSG)이 AS모나코를 꺾고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에서 통산 1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PSG는 6일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4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우스만 댈베레의 '극장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PSG는 1995년 시작된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통산 13번째(1995-1998-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2-2023-2024년) 우승을 맞았다. PSG는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팀이다.

트로페 데 샹피옹은 프랑스 리그1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 경기다.

지난해 대회에선 결승골을 넣고 MVP로 뽑혔던 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 후반 22분 교체될 때까지 한 차례 유효슈팅과 4차례 키패



우승 트로피를 들고 웃음을 짓는 이강인 <이강인 인스타그램 캡처>

스를 비롯해 88%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공격포인트를 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정규리그 1회·쿠프 드 프랑스 1회·트로페 데 샹피옹 2회)를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다.

/연합뉴스

임성재, PGA 투어 개막전 3위

우승은 '35언더파' 마쓰야마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임성재는 6일 열린 PGA 투어 더 센트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치고 최종 함께 29언더파 28타를 기록했다.

단독 3위에 오른 임성재는 상금 136만달러(약 20억원)를 받고 기분 좋게 2025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 대회는 지난 시즌 투어 대회 우승자와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선수들만 출전하는 시즌 개막전으로 올해는

총 59명이 나왔다.

임성재는 2024시즌 우승은 없었지만,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임성재는 경기 후 "3위라는 성적으로 끝내서 기분이 좋다"며 "시즌 첫 대회부터 시작이 좋아 올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트로피는 35언더파 27타를 기록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에게 돌아갔다.

35언더파는 PGA 투어 사상 최다 언더파 우승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22년 이 대회에서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세운 34언더파였다. /연합뉴스

'캡틴 Son', 아시안컵 8강 호주전 연장전서 터진 환상 프리킥... 'KFA 올해의 골' 영예



지난해 2월3일 열린 2023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연장 전반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넣고 있다. 사진은 프리킥의 궤적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 9장을 레이아웃 형식으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흥민, 2년 연속 수상... 아시안컵 호주전은 '올해의 경기' 선정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터트린 프리킥 득점이 '2024 대한축구협회(KFA) 올해의 골'로 뽑혔다.

축구협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이 직접 뽑은 '2024 KFA 올해의 골'과 '2024 KFA 올해의 경기'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축구협회 마케팅 플랫폼 'PlayKFA'에서 지난달 5-26일까지 진행된 투

표에는 2천607명이 참가했다. 투표 결과 손흥민이 지난해 2월 3일 카타르에서 펼쳐진 호주와의 2023 AFC 아시안컵 8강전(2-1승)에서 터트린 프리킥 역전 결승골이 48.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23 KFA 올해의 골' 투표에서도 1위에 올랐던 손흥민은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지난해 6월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차전

싱가포르전에서 단독 돌파로 수비수 3명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파낸 골은 23.2%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고, 조규성(미트윌란)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파낸 헤더골이 10%의 득표율로 3위에 랭크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6차전에서 작성한 골도 4위(7.8%)를 차지하며 '톱10' 안에 두 차례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4 KFA 올해의 경기'는 손흥민

이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호주와의 2023 AFC 아시안컵 8강전(2-1승)이 6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당시 대표팀은 호주에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의 페널티킥 동점골에 이어 연장전 반 14분 프리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뽑아내 2-1 역전승을 따내 팬들을 즐겁게 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쿠팡이츠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5차전(3-1승)이 13.6%의 지지로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한 수에 17만원, 한 판에 1천776만원

'절대 1강' 신진서, 5년 연속 상금왕

한국 바둑의 '절대 1강' 신진서(24) 9단이 5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다.

한국기원은 6일 신진서가 2024년 한 해 동안 14억5천6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해 상금랭킹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신진서는 지난해 1월 LG배에서 우승하며 상금 3억원을 받았고 2월에는

국가대항전인 농심신라면배에서 조유의 '끝내기 6연승'을 연출하며 한국의 우승을 견인해 상금 2억7천500만원을 추가했다.

또 8월에는 랭커배 우승으로 상금 3억4천만원의 행궤고 국내 대회에서도 쏘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과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우승, KB바둑리그



신진서 9단 <한국기원 제공>

신진서는 1국당 평균 1천776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총 8천244수의 돌을 놓아

와 중국 갑조리그 등에서 활약하며 상금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한 해 총 82국(공식 81국, 비공식 1국)을 소화한 신진서는 1국당 평균 1천776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총 8천244수의 돌을 놓아

한 수당 17만5천618원을 기록했다. 신진서는 2020년 상금 10억3천800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돌파하며 상금 1위에 올랐다. 2021년에는 10억5천900만원으로 상금왕 2연패를 달성한 신진서는 2022년 14억4천500만원으로 이세돌 9단이 보유했던 종전 연간 최고상금(14억1천만원)을 깨뜨렸다. 2023년에는 14억7천900만원으로 연간 기록을 경신한 신진서는 2024년 상금이 2천만원가량 줄었지만 3년 연속 14억원을 돌파하며 5년 연속 상금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